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우리 뒷마당에 있는 바알신들 [사사기 6:25-32]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25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의 수소 곧 칠년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26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찌니라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행하되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8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훼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찌니 이는 바알의 단을 훼파하고 단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31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편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32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훼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정죄를 받습니다. 결혼과 동일합니다.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육아는 파트타임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바알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개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우리 뒷마당에서 시작됩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의 만찬 전에 자신을 성찰합니다... 주의 만찬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질투를 보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피(희생)로 궁극적인 값을 치르셨는가: 그분은 마귀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 끝까지 가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헌신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과도 공유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드온의 뒷마당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상징합니다.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이것은 단지 가족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요아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마을 지역의 제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이자 바알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유혹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상황.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칠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 아마도 다음 바알 제물로 표시된 황소일 것입니다. 둘째로, 칠년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은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단을 파괴하라. 아세라 목상을 잘라라. 여호와를 위하여 새 제단을 쌓으라. 두 번째 수소를 아세라 목상의 불로 제물로 바쳐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하며 평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모의 제단? 패션의 제단? 기술의 제단? 지위, 자아상, 인정의 제단? 우리의 은밀한 죄를 위한 제단이요? 정치적 올바름의 제단? **우리가 가진 그 우상이 무엇이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것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9:16-22) 먼저 죄악들이 다 폭로되고 그런 다음 부의 거짓 우상으로 도전받고 그 후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가장 힘든 싸움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낮에는 매일 자기 동네 사람들과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는 종종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한계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3-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만찬도 역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간 계속된 억압과 학대 끝에 그들의 불순종은 그들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바알을 위한 그들의 제단이 파괴되자 그들 안에서 깊은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굳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는 대신 피를 흘리며 울었습니다. 죄는 또한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죄를 보호하고 그것을 폭로한 자와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기드온을 지지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자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기드온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요아스는 제단 신학에 대한 기본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바알이 진짜라면 바알이 기드온을 처리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그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을 볼 때마다 그들은 ‘바알은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우리는 뒷마당에 있는 바알 제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평화의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할 수 없습니다.